



범박휴먼시아2단지 작은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자산취득비 지원

주민들의 열정과 애정이 담긴 곳

범박휴먼시아2단지 작은도서관은 입주자 대표회의 지원 아래, 아파트 주민들의 자원 봉사로 이뤄진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문 사서는 없으나 도서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자 13명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곳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른들도 볼 수 있는 다양한 도서들을 11,000권 이상 갖추고 있습니다. 매년 장서 점검을 통해 분실도서, 손상도서를 찾고 분류기호별로 서가를 정리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이용자들의 도서관 활용과 문화 활동을 통해, 범박휴먼시아2단지 작은도서관이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범박휴먼시아2단지 작 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아파트라는 주거 환경은 어릴 적 추억을 만들기 어렵다지만, 우리 아파트에서는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때마다 근사한 이름을 붙여 상영하는 도서관 영화상영회 덕분입니다. 긴급지원119사업으로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설치하여, 영화상영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보는 아이들과 상영회 시작과 마무리를 도와주고 가는 청소년들 모두 너무 예쁘답니다. 뿐만 아니라 지루할 수도 있었던 저학년 여름방학 프로그램에도 활용하여 재미있게 진행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가족 영화상영회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 시범 상영은 정신없이 지나갔으나, 여유가 좀 생긴 두 번째는 시기도 적절한 초등학교 여름방학 개학 전 주말 저녁 8시였습니다. 서둘러 식구들 저녁상을 치우고 7시30분경 도서관 앞 놀이터를 가로지르는 저의 주위로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지금 도서관 여실 것이지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애는 제 친구인데 같이 들어가도 돼요?”

순간 오늘 자리 부족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차분히 양보하며 앉은 아이들 모습이 예쁘더군요. 아이들이 이 정도로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긴급지원119로 도서관 전체 분위기가 밝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늘어나는 도서 수량에 비해 작았던 서가를 4단으로 늘리고, 우중충한 바닥을 꾸며 환하게 바꾼 유아실은 도서관 전체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어주는 효과를 가져왔지요.



▲ 공사 전 유아실의 모습



▲ 서가 정리를 도와주는 이용자들



▲ 공사 후 변화된 유아실의 모습



사실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유아실 서가의 색상이 참 애매하게 잘못 되어왔습니다. 난감해하며 어찌할지 고민만 하는 저를 대신해 우리 독순이 회원님들이 차분히 따져 재작업하기로 했지만, 휴관 일정은 일주일이나 밀리고 책 정리할 시간은 단 하루만 주어졌지요. 결국 유아실이 엉망인 상태로 이틀이나 운영을 해야 하는 참사가 일어났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온 우리 유치원생 친구들이 울고 가는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던 중, 주민분이 들어오셔서 도와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는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도서관 봉사를 하면서 이용자들, 특히 아이들이 도서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도서관을 좋아해주고 마을의 자랑으로 여기길 바라며, 도서관 운영도 꾸준히 계속되길 바랍니다.

범박휴먼시아2단지 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2018년은 무리하지 않으며 늘어난 이용자 관리와 도서관 운영에 충실해 보려합니다. 2017년은 보람된 한해였지만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비전문가들로 모여 자원 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립도서관에서 여러 부분 지도를 받으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주업이 아닌 봉사이기에 한계도 있습니다. 2017년에는 외형이 커지며 일도 많아졌습니다. 가파른 산행에 뒤 한번 못 돌아본 2017년을 차근히 돌아보며, 한 때 좋았던 도서관이 아닌 꾸준히 유지되고 관리되는 도서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도서관시설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들이나 입주자 대표회에서 노인정이나 놀이터처럼 당연한 시설로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이 유지관리 되고 있음은 우리 같은 봉사자들의 힘이라고 봅니다.

자기개발의 시간, 가정을 위한 시간을 쪼개가며 도서관 봉사를 하는 자원 활동가 분들. 우리는 시간을 멋지게 쓰고 있습니다. 힘내세요.